

## ▶ 달러/원 주간 전망

### • 박스권 하향조정 나설까..美 지표 점검하기

서울, 8월12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해석에 초점을 맞추며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50-1380원이다.

캐리트레이드 청산 충격 여진이 지속되며 글로벌 자산시장은 변동성에 취약해져있다. 캐리트레이드 뇌관으로 꼽히는 달러/엔 급락세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위기급에 준하는 증시 폭락장을 경험한 터라 시장심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시장참가자들은 미국 핵심 경제지표 결과에 관심을 쏟으며 이에 따른 경기진단과 함께 연준 통화정책 경로를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 예정된 미국 경제지표는 7월 소매판매, 산업생산을 비롯한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등이다.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와 최근 불거진 경기침체 여부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쏟아질 전망이다.

로이터 사전조사에서는 미국 7월 CPI는 전월비 0.2%, 전년비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6월에는 전월비 -0.1%, 전년비 3% 각각 상승한 바 있다.

글로벌 달러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 원화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란했던 캐리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원화는 양방향 변동성을 대거 키웠다. 하지만 원화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지만 원화는 주 후반 예상 밖 강세시도에 나섰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이후 변동성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원화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증시와 글로벌 달러, 특히 엔화 동향을 살피는 눈치보기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원 상단이 눌리며 박스권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금주 나오는 미국 경제지표 결과에 이에 따른 증시와 달러 반응 따라 원화의 단기 주거래 구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도 7월 주요 경제지표와 주택가격 발표가 예정돼있다. 원화의 갑작스런 변동성을 자극하는 재료가 위안화인 만큼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시장 해석에도 관심을 뒤야할 것 같다.

## ▶ 주간 세계 5대 이슈

최근 글로벌 시장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엔화 급등 여파가 확산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 일본 경제지표, 영국 경제지표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 ⊙ 엔캐리 청산 지속 여부

투자자들은 지금쯤이면 시장에 '조용한' 여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1년 전에는 미국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로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했고 여름 이전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장을 뒤흔들었다.

지난 월요일 일본 증시가 역대 두 번째로 폭락하고 투자자 불안 지표인 VIX는 장중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는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더라도 앞으로 며칠간 시장 긴장감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증시 폭락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더 청산될지,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격 반응이 발표되는 데이터에 의해 정당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중동 분쟁 확대와 미국 대선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변동성은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美 물가지표와 경기판단

최근 성장세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물가 데이터를 통해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시장의 급격한 침체 소식 등 최근의 부진한 경제지표로 인해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시장의 희망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는 글로벌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맞물려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경기침체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로이터 조사에서는 7월 헤드라인 및 근원 소비자물가가 모두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의 완만한 하락세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너무 오래동안 올려 경제를 후퇴시켰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부진한 결과는 경기침체 우려를 강화해 새로운 시장 변동성을 촉발시킬 수 있다.

## U.S. inflation seen nudging higher

A Reuters poll predicts U.S. CPI to have increased 0.2% in July after falling for the first time in four years in June.



Source: LSEG Workspace, Reuters poll | Reuters, Aug. 8, 2024 | By Kripa Jayaram

### ⊙ 日・中 지표 확인하기

일본은 목요일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은행(BOJ)의 최근 금리 인상이 주식 폭락을 촉발한 정책 실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러한 연관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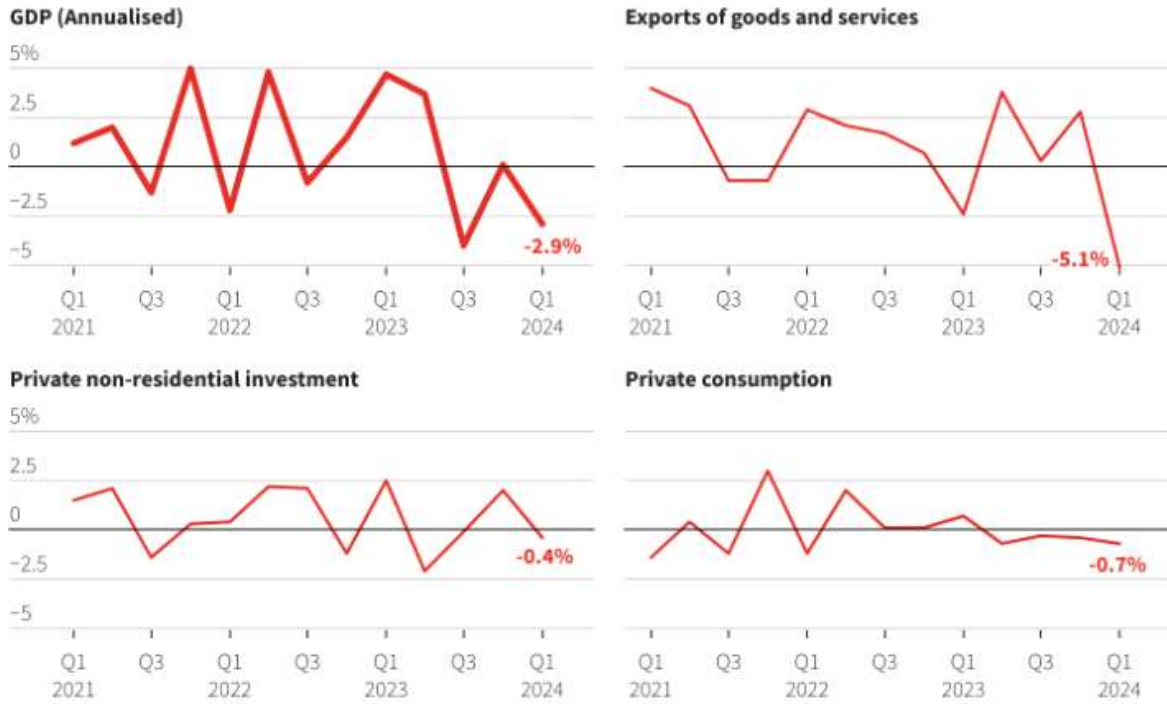
BOJ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촉발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등 엔 캐리 청산으로 확장됐다.

이에 따라 목요일에 나오는 지표가 낙관적인 전망을 나타낸다면 일본 정책 입안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다.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7월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이유를 더 많이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수요일에는 뉴질랜드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여러 데이터도 발표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또 한 번 바쁜 한 주가 될 것이다.

## After rate hike, GDP is coming

Japan will report its preliminary second-quarter growth figures on Aug. 15. The revised Q1 data showed that Japan's economy shrank 2.9% annualised from the prior quarter.



Source: LSEG Datastream; Japan's Cabinet Office | Reuters, Aug. 8, 2024 | By Pasit Kongkunakornkul

### ⊙ 영국 지표 확인하기

7월 금리를 5.0%로 인하하는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린 영란은행은 향후 몇 달 동안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검토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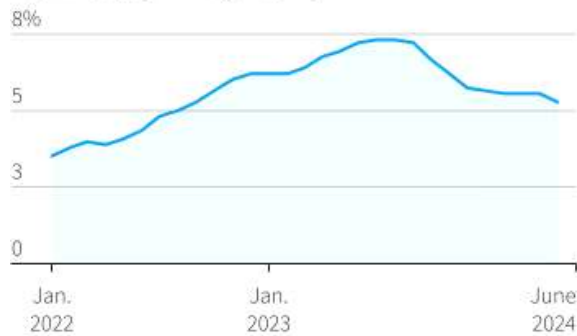
여전히 뜨거운 서비스 부문을 포함한 소비자 인플레이션과 2분기 GDP 및 소매 판매 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 9개월 동안 금리가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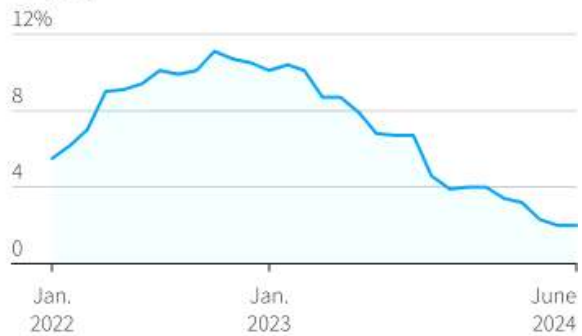
## A busy week for UK data

Bank of England gets fresh data set to mull over after finely balanced Aug. 1 rate 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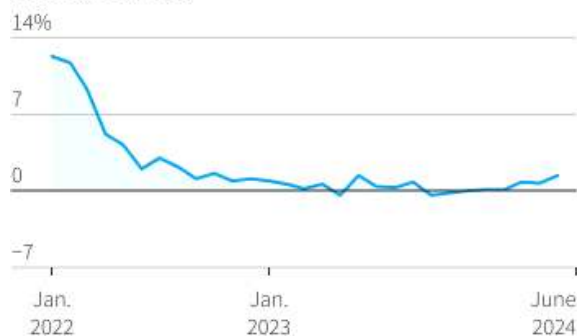
Regular pay (nominal, 3m/3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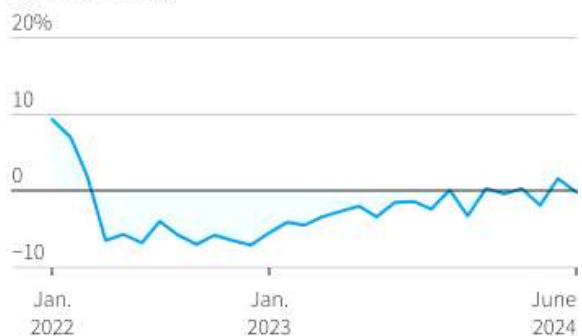
CPI (Y/Y)



Monthly GDP (Y/Y)



Retail sales (Y/Y)



Source: LSEG, ONS | Reuters, Aug. 8, 2024 | By Sumanta Sen

### ⊙ 유럽 기업실적

이달 약 5% 하락한 유럽 증시는 한 가지 희망이 있는데, 바로 기업이익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이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2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이익 증가다. 대략 56% 정도의 기업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

물론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는 수요일 실적을 발표하고, 보험업계에서는 하노버 리, 아비바, NN 그룹, 애드미럴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은 소비 둔화 신호에도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의 강력한 성장세가 약세를 상쇄하고 있다.

## ▶ 美주식시장/주간전망

### • 롤리코스터 美 증시에 투자자들 변동성 대비

뉴욕, 8월12일 (로이터) -

한 주간 급격한 시장 변동을 겪은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 기업 실적, 대선 여론조사를 통해 최근 미국 증시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그널을 찾고 있다.

수개월 간 차분했던 미국 증시는 이번 달 엔화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올해 최악의 주식 매도세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증폭됐다. 지난 월요일 폭락했던 S&P500지수는 이후 연이은 랠리에도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고치 대비 6% 정도 밀려나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 경제 경로다. 수개월 동안 경기 연속룩에 베팅해온 투자자들은 지난주 예상보다 부진한 제조업 및 월간 고용지표 결과 이후 심각한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가격에 서둘러 반영했다.

미라마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밥 칼먼은 "이제 모두가 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탐욕적인 부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이제 시장은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 치열한 선거, 사라지지 않는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며칠 주가가 상승했지만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월요일 하루 역대 최대폭 상승한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지수의 과거 움직임을 보면 변동성이 진정되는 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35 위에서 마감한 이 지수는 장기 중앙값인 17.6까지 회복하는데 평균 170회 세션이 소요됐다.

오는 수요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표는 잠재적인 촉매제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호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인상해 경제를 후퇴시켜 시장 혼란을 견인했다는 우려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다음 연준 정책회의인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할 가능성을 약 55%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 달 전의 약 5%에 비해 크게 상승한 수치다.

TD증권의 수석 미국 거시 전략가인 오스카 무노즈는 최근 메모에서 "취업자수 증가율 둔화는 인플레이션 냉각과 경제활동 둔화 등 미국 경제가 리스크 측면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실적은 시장 방향을 제시할 만큼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았다고 헤지펀드 밸류워크의 찰스 레모니데스 대표는 말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에 속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4.1% 높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장기 평균은 전망보다 4.2%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는 월마트와 홈디포가 있고, 이들 실적은 수개월간의 금리 상승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단면을 제공할 것이다.

이달 말에는 최근 매도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가가 약 110% 상승한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다.

8월22~24일로 예정된 연준의 연례 잭슨홀 모임은 9월 회의 전 정책입안자들이 통화정책 메시지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레모니데스는 최근 변동성이 강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조정이라며 아마존 주가의 약세를 활용해 포지션을 열었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 레이스도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5일에 있을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42% 대 37%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까지 거의 3개월이 남아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최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선거의 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간의 애널리스트들은 "초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제시되었지만,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벨리 펀드의 가치 부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크리스 마랑기는 이번 선거가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9월에 예상되는 금리 인하는 빅 테크 영향으로 그간 1년 간 주춤했던 시장 영역으로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 인하가 경기둔화를 상쇄하면서 순환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서울, 8월12일 (로이터) - 이번 주 국내 주요 경제 일정

8월12일(월)

- ⊙ 관세청: 8월1-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현장방문 (09:30)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 (10:00)
- ⊙ 한국은행: 2024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8월13일(화)

- ⊙ 한국은행: 2024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06:00)
- ⊙ 금융감독원: 2024년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 (06:00)
- ⊙ 한국은행: 2024년 6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거주자외화예금의 특징과 시사점 - 변동요인 및 차입금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2:00)

8월14일(수)

- ⊙ 통계청: 2024년 7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8월 재정동향(6월말 누계기준) (11:00)

8월15일(목)

- ⊙ 광복절

8월16일(금)

- ⊙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09:00)
- ⊙ 기획재정부: 2024년 8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8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배포시)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8월12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치	이전 수치
8월12-16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7월	6.1%	6.2%
8월12-16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7월	450.0B	2,130.0B
8월12-19일		중국	FDI (YTD)	7월		-29.10%
8월13일	03:00	미국	연방예산	7월		-66.00B
8월13일	08:50	일본	기업상품가격지수 MM	7월		0.2%
8월13일	21:30	미국	PPI MM	7월	0.2%	0.2%
8월14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8월		11
8월14일	18:00	유로존	고용 잠정치 QQ	2분기		0.3%
8월14일	18:00	유로존	GDP 속보치 QQ	2분기	0.3%	0.3%
8월14일	18:00	유로존	산업생산 MM	6월	0.5%	-0.6%
8월14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8월9일 주간		215.1
8월14일	21:30	미국	CPI MM, SA	7월	0.2%	-0.1%
8월15-22일	08:50	일본	기계류주문 YY	6월		10.8%
8월15일	08:50	일본	GDP QQ 연율	2분기	2.1%	-2.9%
8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7월		-4.5%
8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7월	3.9%	3.9%
8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7월	5.2%	5.3%
8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7월	2.6%	2.0%
8월15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8월	-6.00	-6.60
8월15일	21:30	미국	수입물가 MM	7월	-0.1%	0.0%
8월15일	21:30	미국	수출물가 MM	7월	0.0%	-0.5%
8월15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8월5일 주간	235k	233k
8월15일	21:30	미국	소매판매 MM	7월	0.3%	0.0%
8월15일	22:15	미국	산업생산 MM	7월	-0.3%	0.6%
8월15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8월	43	42

8월 16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7월	1.430M	1.454M
8월 16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7월	1.335M	1.353M
8월 16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8월	66.9	66.4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8월12일 (월)

- ⊙ 휴장국가: 일본, 태국

8월13일 (화)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아프리카어메리칸 파이낸셜 프로페셔널 컨퍼런스서 연설 (14일 오전 2시15분)

8월14일 (목)

-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전 11시)

8월15일 (금)

- ⊙ 알베르토 무살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루이스빌서 연설 (오후 10시1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행사서 연설 (16일 오전 2시10분)
- ⊙ 휴장국가: 인도, 이탈리아 등

8월16일 (금)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엔젤레스인베스터스 3분기 서밋 행사 토론 참석 (17일 오전 2시25분)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단독)-中 기업들, 美 신규 규제 대비해 삼성전자 반도체 비축

서울/싱가포르, 8월6일 (로이터) -

화웨이와 바이두 등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예상해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반도체를 비축하고 있다고 소식통 3명이 밝혔다.

소식통 중 한 명은 이들 기업들이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AI)에 필요한 반도체 구매를 늘리면서 2024년 상반기 삼성전자 HBM 반도체 매출의 약 30%를 중국이 차지한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의 반도체 수요는 주로 최첨단 버전인 HBM3E보다 두 세대 뒤쳐진 HBM2E 모델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비축된 HBM 칩의 양이나 가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위성 제조업체부터 텐센트와 같은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이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호킹(Haawking)이 최근 삼성전자에 HBM 칩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바이두, 화웨이, 텐센트, 호킹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주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이 이달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수출 통제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중국에 대한 HBM 판매 제한은 중국 의존도가 덜한 경쟁사에 비해 삼성전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 (시장진단)-과격하 캐리트레이드 청산에 원화 '갈팡질팡'..양방향 변동성 대거 확대

서울, 8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양방향 변동성을 대폭 키우고 있다.

미국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동시에 실업률이 3년 만의 최고치로 오르자 미국 경기침체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된 테마로 부상했다.

지난 주말 뉴욕 금융시장의 발작이 5일 아시아 주요 증시 폭락을 촉발시킨 가운데 이날 닷케이지수는 12.4% 폭락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8.4% 하락 마감해 역대 최대폭 하락했고, 코스피지수는 한 때 10%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약 1.4조원을 매도해 2022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아시아 시간대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추가 하락하는 가운데 달러는 하방압력을 키우고 있다. 캐리트레이딩의 급격한 청산 속에서 고금리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저금리 통화 가치는 급등하는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대표 펀딩 통화인 엔화는 달러 대비 3% 이상 급등해 달러/엔은 141엔대로 추락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1350원과 1370원대를 오가는 등 양방향 변동성을 대거 키우고 있다. 달러 약세에 역외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세가 거셌지만 외인 주도의 증시 폭락에 원화는 약세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다.

한 은행 외환딜러는 "증시 상황에도 달러/원이 무거웠는데 역외 추정으로 달러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은행 외환딜러는 "주식과 달러 등 강했던 미국 자산이 되돌려지면서 이에 따른 포지션이 과도하게 꺾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면 위험선호 현상이 유지될지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게 됐다"면서 "달러/원 FX스왑 단기쪽도 리스크를 인식해서 그런지 오전 흐름을 다 되돌렸다"고 말했다.

현재(오후3시13분) 달러/원 환율은 1370원선으로 고점을 높였다. 이날 달러/원 일간 변동폭은 15원 이상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외환시장의 지배적인 움직임은 고금리 통화는 약세, 저금리 통화는 강세인데 원화는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약달러에 한동안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반도체 주식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촉발한 달러 매수세에 원화는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 그때 분위기 따라 환율이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단기 바닥을 1350원대로 예상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문운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